# 비엔날레를 사랑한 김대중

## 광주 전시장 3차례 관람… 평화의 메시지

## 재임 중 사재털어 입장권 수천장 구입도

생전 광주비엔날레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던 김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이희호 여사와 함께 제5회광주비엔날레를 직접 관람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비엔날레는 실험정신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창조적인 메시지가 있는 전람회이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창조적인 에너지로 연결되지 않겠느냐."(2004년 10월2일, 제5회광주비엔날레를 둘러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사비를 털어 입장권 2천매를 구입해 주는 등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예향 광주에서 치러지는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했고, 후원도 아끼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과 광주비엔날레의 첫 인연은 제1회광주비엔날레가 열린 지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신분이었던 김 전 대통령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광주비엔날레가 창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시 기간이었던 10월21일 광주시 북구 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대통령 시절인 2002년에는 직접 제4회 광주비엔날레의 입장권을 구입하기도 했다. 월드컵 열풍으로 광주비엔날레 관람객 수가 줄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이희호 여사를 통해 입장권 2천매를 구매한 것.

광주비엔날레재단 김포천 전 이사장은 "정치 일정이 빠듯해 김 전 대통령이 개막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뒤늦게 이희호 여사가 청와대를 통해 입장권을 보내달라고 연락해 왔다"면서 "이 입장권은 영호남 화합을 위해 대구 지역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1천명과 광주지역 저소득층 청소년 1천명에게 전달됐다"고 회고했다.

퇴임 후인 지난 2004년 11월2일에는 이희호 여사와 함께 제5회광주비엔날레를 직접 관람했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이용우 예술 총감독(현 재단 상임부이사장)의 안내를 받아 30여분 가량 전시 작품을 둘러봤다.

특히 제1전시실에 설치된 첫 작품인 민중미술가 박불똥씨와 고은 시인의 협업작품인 '불후·진폐증에서 산림욕까지'와 프라다·이경호의 '행렬 달빛 소나타'를 유심히 지켜봤다.

'행렬…'은 기계로 뻥튀기를 튀겨낸 작품으로, 김 전 대통령은 직접 뻥튀기를 맛 본 뒤 "현대 미술도 굉장히 재미있다"는 말을 남겼다.

전시장을 빠져나가며 방명록에는 '文化韓國의 源流(문화한국의 원류)'라고 적어넣어 광주비엔날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었다.

또 전날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도 "광주는 평화를 지향하는 예향이다. 광주비엔날레에 평화의 기운이 감돈다. 그래서 광주비엔날레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2007년 10월5일 제2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에 이희호 여사와 함께 참석해 '세계디자인평화선언'을 낭독했다.

김 전 대통령은 선언문을 통해 "디자인은 삶의 질을 높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디자인, 평화를 위한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그러한 디자인의 대표적 상징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큰 성공을 거둬 디자인을 통한 평화의 메시지가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대중문화의 든든한 후원자"

### ■문화계 자유의지 일깨운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저마다 김 전 대통령과의 남다른 인연을 소개하면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소설가 황석영 씨는 "해방 이후 우리 대통령 가운데 김 전 대통령만큼 경륜 있고 글로벌한 지도자가 있었는지 싶다"며 "몇 달 전에도 측근을 통해 전화를 하셔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전하실 정도로 최근 남북관계 정체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민족문학작가회의(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지낸 소설가 현기영 씨는 "군사독재 시절 때 그분은 우리가 억압당하는 자유를 표상하는 이름이었고, 우리가 곧 달성해야 할 민주의 얼굴이었다"고 전했다.

연극인 손숙씨는 "평생을 국민을 위해 사신 굉장히 따뜻하고 정 많은 분이지만 너무 많은 유언비어와 오해가 있어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했다.

1997년 MBC TV '이경규가 간다'를 김 전 대통령을 인터뷰한 개그맨 이경규는 "당시 예능프로그램으로는 전격적으로 김 전 대통령을 인터뷰했는데 일산 집 앞으로 불쑥 찾아갔는데도 응해주셨다"며 인연을 소개했다.

2004년 2월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김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 서태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라며 "특히 대한민국 젊은 세대의 대중문화와 음악을 사랑해주신 분으로 존경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김대중 도서관'에서 김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서태지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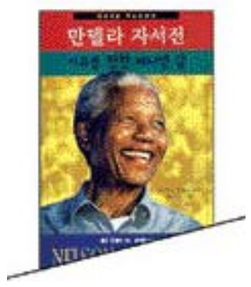
영화 '화려한 휴가'(2007)를 제작한 유인택 기획시대 대표는 "당시 이희호 여사와 극장에 나와 영화를 보시고는 '잘 만들었다, 흥행되겠다'며 격려해 주셨다"고 말했다.

임권택 감독은 "대통령이 되시기 전 영국에 계실 때 '서편제'를 비디오로 보시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극장에서 영화를 보셨다"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했다.

/연합뉴스

# 늘 책과 함께 하며 공부하는 삶

## 인생·정치 철학 고스란히 담아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저서들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공부하는 삶을 살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생과 정치에 대한 철학을 담은 다양한 책을 출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정치와 사회, 경제 등 여러 분야의 현안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밝히는 책을 발간했으며 자전적 에세이를 통해서는 한 인간으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김대중 옥중서신'은 김 전 대통령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사전 지시했다는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육군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를 당시 부인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29통을 모은 책이다.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라는 말로 봉함엽서에 깨알같이 쓴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닌, 신앙고백이요, 연구 논문이요, 문명비평이자 역사 탐구서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고 정계에서 은퇴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연구생활을 하면서 쓴 자서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1993)는 인간 김대중의 삶과 진실, 눈물과 용기의 진솔한 기록을 담고 있다. 다섯 번의 죽을 고비와, 네 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이 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가 담담하게 전해 온다.

'대중경제론'(1986)은 김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초 미국 망명 기간에 쓴 경제서로 한국 경제가 안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명쾌한 논리로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은 1985년 미국 하버드대학출판부에서 영문판으로 출간됐고 집권 후 국내에서 '대중참여경제론'으로 재출간되기도 했다.

'21세기 한민족'(2004)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임 기간에 한 주요 연설과 퇴임 이후에 한 연설 및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모은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30여 편의 주요 연설문에는,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베를린 선언, 6·15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문,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문 등 대통령 재임기의 역사적인 기록뿐 아니라 위기에 빠진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언론과의 주요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나의 삶, 나의 길'(2000)은 김대중 대통령의 자전적 에세이집.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의 험난했던 인생역정을 사진과 함께 묶어 총 23편의 글 속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천천히 들려준다.

그 밖에 통일 전략을 담은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1995),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민족 통일에 관한 '나의 길 나의 사상'(1997) 등의 저서도 있다.

'내가 사랑한 여성'(1997)은 코라손 아키노, 아웅산 수치와의 우정, 이성미 ·김미화 등 개그우먼들에 대한 찬사, 손숙의 연극무대, 손녀와 어머니 그리고 사별한 첫 부인에 대한 사랑 고백 등 삶에 대한 지혜와 여성에 대한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그 밖에 김 전 대통령은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1995)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